



장성군, 11개 읍면사무소 복지 허브로

장성군이 10일부터 장성읍을 비롯한 11개 읍면사무소에 '맞춤형복지지계'를 새롭게 설치하고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은 행정의 일선에 있는 읍면사무소를 지역 중심 기관으로 강화하고,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혜자에게 필요한 맞춤 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거점지역인 장성읍과 삼계면, 황룡면, 북어면은 맞춤형복지지계가 새롭게 신설돼 주민복지지계와 함께 복지 업무를 추진하고, 나머지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서삼면, 북일면, 북하면은 기존 주민복지지계에 인원을 충원해 맞춤형복지지계로 바뀐다.

장성군은 이에 맞춰 읍면사무소 명칭도 '행정복지센터'로 새롭게 바꾸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복지를 담당하는 인력과 기구가 크게 강화된 만큼 경

'맞춤형복지지계' 신설 및 기능강화

수혜자에 필요한 맞춤 복지 제공



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맞는 섬세한 맞춤 지원을 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군은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

육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22일에는 11개 읍면 복지 담당 및 담당자, 읍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5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밭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사업 등 당면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복지허브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그에 앞서 복지 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 익산시, 광주 서구 금호동을 벤치마킹해 담당자들이 사업 성공에 필요한 노하우와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상옥 주민복지과장은 "장성군이 타 시군보다 늦게 합류만큼 더욱 더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군 복지허브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의 역할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 이동장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제로인 행복한 온로티 장성군을 함께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복지허브사업의 체계화와 인력이 갖춰진 민족 앞으로 수혜자들을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에게도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장성=반정모 기자

신안군 홍도서 '불불락 축제' 열린다

오는 13일부터 이틀 간

해질녘 섬이 빽빽 보인다고 해서 이를 불여진 홍도가 빽빽한 물고기인 불불락으로 인해 더욱 빽빽 물들여질 예정이다.

신안군은 홍도불불락축제추진 위원회 주관으로 홍도에서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를 동안 불불락 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불불락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시식해볼 수 있으며, 홍도 수산물 깜짝 경매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체험행사로 어선을 타고 선상 불불락 낚시를 할 수 있다. 강태

공이 아니더라도 자연산 불불락을 한 번에 여러 미리를 뉘는 진 풍경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와 어울리는 해변 콘서트도 열려 참가자를

의 감성을 자극할 계획이다.

최경애인 홍도 인근에서 잡힌 불불락은 일명 열기라고 불리는데 회로도 먹지만 육질과 식감,

맛이 좋아 탕·구이·튀김 등 다양한 레시피로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생선이다.

축제의 흥을 돋우기 위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사물놀이페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화려한 해상 선박 퍼레이드가 축제의 서막을 장식한다.

신안=박응식 기자



함평군 국제농업박람회

참가 준비에 '구슬땀'

함평군은 오는 26일부터 개최하는 '2017 국제농업박람회'에 참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박람회장 조경에 사용할 국화와 핑크뮬리 등을 기르는 데 힘쓰고 있다.

또 박람회장 내에 통합부스 6개를 설치해 함평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할 예정이다.

함평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국제농업박람회를 함평의 맛과 면을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11일간 30개 국가 360개 기관·단체·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나주 산포면 소재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린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광군, 2017년 새기술 보급사업 종합평가회 개최

시범사업 농가 및 농업인 단체 대표 등 80여 명 참석

영광군은 지난 9월 29일 시범사업 농가 및 농업인 단체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새 기술 보급사업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기술 보급사업 종합평가회는 올해 농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시범 포장 및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등을 순회하며 생생한 현장 교육 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2017년 친환경 고 품종, 병해충 저항성 품종 등에 관한

품질 쌀 및 원예·특작분야에 걸쳐 시범단지 작황 및 우수시례와 문제점 및 개선 대책 등을 종합 평가한 후 관내 논두렁 보수 시범단지, 흰잎마름병 발병상습지 실증 시험포, 원예작물 종자생산시설 생력화 시범 등을 견학하여 각 시범사업별 현지평가를 실시했다.

이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벼 및 밀작물 품종비교 전시포를 방문하여 내년도 벼 품종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신육성 품종, 병해충 저항성 품종 등에 관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영광군수는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풍작을 이뤄낸 농업인에게 신뢰와 존경을 보낸다."라며, "오늘 평가회가 농업 변화의 긍정적인 미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고 말하였다.

평가회에 참석한 농업인은 "농사전반에 걸쳐 올 한해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특히,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평가를 통해 내년도 영농설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고흥군, 비전5000 프로젝트 멤버십 카드 발행

고흥군은 비전5000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우대카드(비전5000 프로젝트 멤버십 카드) 발급의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 3기부터 시작한 역점 사업인 농립수산식품산업 비전5000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에 힘쓴 농림어가의 노고에 대한 보답이자 고

소득 농림어가가 예우받은 풍토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침으로 관내 공공시설물 9개소의 이용에 대한 할인을 제공한다.

우대카드(비전5000 멤버십 카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고흥분청문화 박물관,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발포 역사전시체험관,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고흥우주발사전망대, 고흥군 국민센터 및 기획 문화예술공연의 입장료 50% 감면과 팔영산 휴

양립, 마복산 목제문화 체험장 숙박 시설 이용료의 연 1회에 한하여 50%를 감면한다.

현재 농림어가 소득향상을 주도한 핵심그룹 농기는 전체농가의 8.1%인 2,803 농가(5천만 원 이상 1,965명, 1억 원 이상 583명, 2억 원 이상 255명)로 발급을 희망하는 농림어기는 읍면사무소 산업부서에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부장

럼한 가격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마케팅을 전개하여 도시민들에게 각광을 받았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인 '보성몰'에서는 추석절 농특산물 10% 할인 행사와 신규회원 적립금 5천원 쿠폰제공 1만 원 이상 택배지원, 10만 원 이상 구매 시 에코백을 증정하는 특판 행사를 운영하여 2천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이어, 여주프리미엄아울렛 내 퍼블리마켓에서 보성의 대표상품인 녹차와 연관제품, 식품명인이 민든 된장, 고주장 등 가공식품과 전연염색 스파프 등 총 40여종의 우수한 제품을 입점·판매하여 수도권 소비자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자 지했다.

보성=안구일 기자